

Shall we turn in our Bibles tonight to Colossians, chapter one. The city of Colosse, was in the area known as Pergia, a part of Asia Minor. A couple of other churches are greeted by Paul in this epistle, and the epistle was told to be read also to those churches and that was the Laodicean church. And also the one in Hierapolis. Paul had never personally been to these churches. They had never seen his face. However, the churches were probably started as a bi-product of Paul's ministry in Ephesus, for as Paul was in Ephesus for two years and Ephesus is not that far from Laodicea and from Colosse. There were those who came from these areas, heard Paul, and the word of God was spreading through that area as the result of Paul's ministry in Ephesus.

다같이 골로새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페르기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외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같은 또 다른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그 모든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였을 때 생겨난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사역을 하였고, 에베소는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So, they probably went back to these areas and just began fellowships which grew into churches. Epaphras was the minister of the church in Colosse, and Epaphras had come to Paul while he was in Rome in prison and had related unto Paul some of the dangerous heresies that had begun to be spread there in Colosse. And so Paul is writing the epistle to correct these heresies that were becoming popularized in that community. One of the heresies was that of Gnosticism, which denies the deity of Jesus Christ. Another heresy was that of Judaism, which of course was the mixture of the works along with faith for salvation. The letter was written at the same time that he wrote his letter to the Ephesians and was carried by the same messenger Tychicus, who carried the Ephesian epistle, carried also this epistle to the Colossians, written about 64 A.D. during Paul's first imprisonment in Rome.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작은 모임을 가지게 된 후 그 모임이 커져서 결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골로새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던 위험한

이단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교회공동체 속으로 파고들어오기 시작한 이 이단문제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단들 중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유대교적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은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같이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두기고가 또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때가 주후 64년경이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nd Timotheus, our brother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And so, the introduction in greeting is so typically *Pauline*, that in studying these epistles of Paul to the churches, we have covered this same introduction in various forms. Again, because he is going to be addressing things of doctrinal error, he again takes his title as the apostle of Jesus Christ. And he's speaking with his apostolic authority,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gain, not all are apostles, not all are prophets, not all are evangelists, not all are pastors, not all are teachers. God calls men and women to every vocation of life. And whatever God has called you to b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be what you are by the will of God.

그리하여 인사말로 시작하는 서문은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입니다. 서신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서문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교리적인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복음전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Now, it is interesting as Paul is praying for the Colossians here, his first request for them is that they might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will of God. How many of you think that's an important prayer? I pray that for myself all the time; "God help me to know your will in each situation." But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hat each day we commit our lives unto God and un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And if we will do that, I believe that our lives then become the progressive revelation of God's will. I think

that if in the morning I say, "Lord, my life is Yours. I want to be Your servant today. I want You to lead me by Your Spirit. I want You to over rule any wrong decisions that I might be making. Lord, just take control of my life." And I yield myself thus to the Lord, I believe that as the day unfolds, it becomes a progressive revelation of that which God has purposed and planned for me.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찬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마다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될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께서 저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린다면 그 날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것들이 점차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My problem: I'd like God to just paint me a picture of the whole day and get me the schedule and say, "All right now, at 9:00 o'clock you'll do this and at 10:30 I want you to go over there, and 11:00 o'clock if you'll come back here and talk to this fellow and..." I'd like the whole daily schedule in the morning so I can just look at it and say, "All right fine. Let's go for it, Lord." But it is interesting how God never gives you the second step until you've taken the first step.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고 스케줄을 한꺼번에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홉시에는 이걸 하고, 열시 반에는 저기로 가서 저걸하고, 11시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날의 전체 스케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디디기 전까지는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 디딜 것인지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God said to Phillip, "Go down to Gaza." And so he did. Told him it was a desert place, but he knew that. When he got to Gaza and there were a lot of things that actually mitigated against his going to Gaza, because it was such a desert place, and he was in a great movement of the Spirit in Samaria. Hundreds of people were coming to Jesus Christ. Things were really cooking through his ministry there. Miracles were being

wrought, and God takes him out of this successful evangelistic campaign down to the desert.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사막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빌립은 이미 가사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사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가사는 뜨거운 사막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성령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수 백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전도사역의 와중에서 빌립을 끄집어 내어 사막으로 내려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Now he could have stayed in Samaria and said, “Now, Lord, come on. Can’t You see the work that is being done? And why do You want me to go to Gaza?” And he could have stayed there and argued with the Lord, and he could have rationalized very easily himself out of going to Gaza. He could have said, “That couldn’t have been God that said that to me. That’s such a desert place. And surely God wants me to stay where things are really hopping, and it couldn’t have been the Lord.” And had he never gone to Gaza, he would have never gotten the next instruction. You see, our problem is that we don’t always follow the first order, and then we never get the second order. The second order often doesn’t come until the first order is obeyed. Go to Gaza. When he came to Gaza, he saw a chariot heading towards Ethiopia, and the Lord said, “Join yourself to the chariot,” second order. And progressively, God’s will was made known to him. So it happens in our lives. 빌립은 이렇게 말하며 사마리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지 못하십니까? 왜 하필 지금 저 보고 가사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말씨름을 하면서 그곳에 주저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거기는 사막이라고 사막.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곳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실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리가 없어.” 만일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다음 단계의 지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첫번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번째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는 첫번째 지시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사로 가라.” 빌립이 가사로 갔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로 가는 병거를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빌립에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So whatever I am, I am by the will of God. Paul, an apostle of Jesus of Christ by the will of God. Timothy: Paul calls him his beloved son in the Lord, a companion of Paul. Probably no one understood and was so in harmony with Paul as was Timothy. To the Philippians, he said, "I'm sending Timothy to learn of your safety, because there is no one who is as like-minded in the things of the Gospel as I am, as is Timothy." He had really caught the heart of Paul in his commitment unto the things of the Lord. Somehow,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those who have the same vision, the same commitment to the things of the Lord.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아들된 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만큼 바울을 잘 이해하며 협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헌신하는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참으로 합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일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He's writing to the saints, those who'd been set apart, and the faithful brethren in Christ, which were at Colosse. Now, remember, heresy is creeping up in the church. He's going to be writing to correct some of these heretical ideas. But he writes to them as, first of all, saints, secondly, as faithful brethren, and thirdly, in Christ.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단이란 것은 교회 속에서 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단적인 생각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진실한 형제라고 부르며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The typical, Grace be un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We give thanks to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praying always for you (1:2-3), 이어지는 인사는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의 인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And Paul, it seems, mentions in almost each of his epistles his prayers for those people, "God is my witness," he writes to the Romans, and "I bow my knee before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making mention of you in my prayers." He offers a couple of prayers i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and he mentions his prayers in so many of the epistles. Paul was a man of prayer, as is true of any man who is used mightily of God; they are men of prayer.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서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노라(롬 1:9)"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그 밖의 여러 서신들 속에서도 형제들을 향한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개 그러한 것처럼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Since w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 and of the love which you have to all the saints, for the hope which is laid up for you in heaven (1:4-5),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1:4-5)

Again, these three are so often coupled together: the faith, the hope, the love. Remember in Corinthians thirteen, "Now abide these three: faith, hope, love" (Corinthians 13:13). Characteristics that mark the believer: the faith of the believer, the love of the believer, and the hope that is in the believer.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the continuing mark of the child of God. And so, "The faith in Jesus Christ, the love for the saints, and the hope which is laid up for you in heaven whereof you heard before in the word of the truth of the gospel."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전 13:13)고 말하였습니다. 신자의 특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One of Paul's prayers for the Ephesian church is that they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their calling. If you only knew what awaits you, if you only knew this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Peter said, "Thank God we've been born again 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that is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1 Peter 1:3,4,5). This hope of that glorious kingdom, the kingdom of Jesus Christ.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벧전 1장 3-5절) 우리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And so,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which is come unto you, the word of the truth of the gospel which is come unto you, as it is in all the world. 다음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이미 온 천하에 이른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매”(5-6절) 라고 하였습니다.

Now, it is interesting here that Paul does declare that the gospel at this time had gone into all of the world. That's amazing! Without jet airliners, without satellite TV, without radio, the early church was able to take the gospel into all of the world. They fulfilled the commission of Jesus Christ,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Mark 16:15). Paul here declares that the task was accomplished, and this is just some thirty-two years after the death of Christ. And this is without building a single church, or building a single seminary, or without Campus Crusade for Christ, without programs. How was it accomplished? It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y the fact that they did depend upon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thin the church. 복음이 이미 온 천하에 이른 것처럼 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트 비행기도 없었고, 위성방송도 라디오도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2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교회건물도 하나 없었고, 신학교도 하나 없었고, CCC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Now, I thoroughly disagree with those that say, “Well, the Holy Spirit was given in the beginning to give them a start, but once they got organized, they no longer needed the Holy Spirit's power. And so, God withdrew that power to let us go now on our own steam, sort of speak, with our own genius and with our seminaries and all.” With all that we have today, we are failing to get the gospel into all the world. A smaller percentage of people in the world know of Jesus Christ today than did know of Him

thirty years ago. In fact, with the rate of the population growth explosion in the world and with the rate by which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in the world...the declining rate, if things continue status quo, by the year 2021, only 5 percent of the people in the world will have heard of Jesus Christ. With all of our seminaries, and radios, and TV's, and programs, and wisdom, and devices, and schemes, and methods, it's a real indictment against the church. It does say much for the Holy Spirit and for His ability and power. I believe that the only hope for the church to reach this generation with the gospel, is again, the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and being led of the Holy Spirit. I don't think it can be done by man's devices; I don't think that we can devise a program to do it. And I don't think God intends us to. I believe that it is only through prayer and through being led by the Spirit that the church can be an effective witness in the world. Jesus said, "Ye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Jud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Acts 1:8). But the only power that we have whereby to be that kind of a witness is the power of the Spirit, and if we deny that, and reject that, then surely, we are going to fail in the mission of getting the gospel into the world. "글쎄요..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때에만 시작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고, 일단 교회가 조직화되고 난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힘을 거두어가셨고, 이제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신학교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년 전의 크리스찬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동안 세계에는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는 인구증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가면 2021년 경에는 지구상의 오직 5%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이들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학교들과 라디오 방송국과 TV들과 수 많은 프로그램들과 지혜와 도구들과 계획과 방법들을 가지고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만이 오늘날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실 소망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고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권능은 오직 성령의 권능 뿐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Again, in this first chapter, Paul makes mention of the fact of the gospel being preached into all of the world. Verse twenty-three, 바울은 1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If you continue in the faith grounded and settled, and be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which ye have heard, and which was preached to every creature which is under heaven; whereof I Paul am made a minister (1: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1:23)

There are those who say, "Well, Jesus can't come until the gospel's been preached into all the world." Well, the gospel has been preached in all the world. And it brings forth fruit. The glorious thing about the gospel is it does bring forth fruit. And look where in the world the gospel has been received. Look at the fruit that it has brought forth in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n the nations themselves, those nations that have receiv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look at the fruit that it's brought forth. Those nations, where other religions are more or less the national religions and reign, look at the fruit of that. Now, I'm talking about the tru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unfortunately,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does not always proclaim the true gospel of Jesus Christ. But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quite often, is just another religious experience and is as another religion in the world, because it doesn't always proclaim the real gospel of Jesus Christ. And so, there are nations that hav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urch and they're no better off for it. But those that hav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 can see the fruit; it has brought forth fruit in the lives of the people. "글쎄요.. 예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측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그 지역 사람들과 민족들의 삶 속에 맺어낸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복음이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때로 불행하게도 교회가 제도화되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들처럼 그저 하나의 종교집단화하는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에는 비록 한 나라가 교회의 영향권 내에 있다 할지라도 별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And one of the fruits of the gospel is that of the love of freedom, the love of liberty. Our nation founded really from people who were looking for that freedom of worshiping God without a state church, without the state ordering the church and supporting the church and taking the taxes from the people for the church. The darkness of Europe today is the result of state church systems. And in those European nations where you have the state church, where the church is supported by the taxes of the people, you find that the church is decadent; it's dead. There were men who had a love for freedom becaus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y established this nation. And that's why freedom and liberty was such an important thing to them, but as other forces have moved in as the church's witness has waned, we see there is also an eroding of our freedoms, an eroding of the liberties. And people are allowing it, because the strength of the gospel is not what it once was in this land. And so, we are not as free as were our forefathers. 복음의 열매 중 하나는 자유에 대한 사랑입니다. 미국은 국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국교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부터 세금을 걷어서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영적인 어두움은 국교체제의 귀결입니다. 국교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에서는 교회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유를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나라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그토록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도 교회의 복음증거가 약해지면서 다른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가 부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이 땅에 있었던 복음의 힘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건국선조들처럼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could carry on with that, but time doesn't permit. It brings forth fruit. The real fruit of the gospel is love: an appreciation of fellow man, a love for our brothers, a love that manifests itself in deeds of charity and goodness to one another, reaching out. 복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 다만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형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서로 서로 자비와 선행을 베풀음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And bringeth forth fruit, as it doth also in you, since the day you heard of it, and knew the grace of God in truth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6)

And Paul's emphasis here, "You heard and knew the grace of God in truth." How important that we know the grace of God in truth.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에 있습니다.

As you also learned from Epaphras our dear fellow servant, who is for you a faithful minister of Christ; who also declared unto us your love in the Spirit. For this cause we also, since the day we heard it, do not cease to pray for you, and to desire that you might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1:7-9)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 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1:7-9);

So, the first petition that Paul is praying for the church is that the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will of God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Secondly, 사도 바울의 첫번째 간구는 그들이 모든 지혜와 총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찬 이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1:10)"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Paul wrote to the Ephesians and told them all that God was and had done for them, and then he said, "Now, walk worthy of the calling, wherewith you were called." You're a child of God. Walk like it, live like it; walk worthy of that which God has called you to be, His child. Walk in a manner that is befitting that of a child of God. You might walk worthy of the Lord unto all pleasing, being fruitful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How important that we be increasing in our knowledge of God. And that's what these Sunday night services are dedicated to. For you can only really know God in truth as He is revealed Himself to us through His word. Your only real source of the knowledge of God is here in the Bible. And so, to know God we must know the word of God, whereby He has revealed Himself to man.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And we, week by week, should be increasing in our knowledge of God. That you might be,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 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한 태도로 살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야 합니다. 매주 매주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게”(1:11) 됩니다.

Now, so often, 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is not with joyfulness. It's with sort of complaining and whining and griping, “I've been waiting so long!” And we just sort of wail when God makes us wait. But that we might wait with joyfulness. 때로 우리는 견디고 참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댁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읊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되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Paul again wrote of the saints in light to the Ephesians here. And there is a great parallel, of course, both the epistles were written at the same time, and so a lot of parallel thoughts in the two. But we give thanks to God, who has made us worthy to be partakers of this inheritance. Again, Paul prayed for the Ephesians that they might know what is His inheritance. Something different, but he did refer also as one of the blessings of God, that inheritance that is ours of the saints in light.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언급하였던 성도의 축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모두 동시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두 서신 속에서 많은 부분 병행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기도를 드렸지만, 이곳 골로새서에서는 그 기업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ho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has translat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1:13):

That's what conversion is all about. Being delivered from the power of darkness from our bondage in sin: that power of Satan that once held us. And translated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We read so much in the scriptures of the kingdom of God, and so often we think of that as something totally future. For many people it is. But for you, it should be a present experience. You see, you become a part of that kingdom the moment you bow your knee to Jesus Christ and acknowledge Him as your King and your Lord. I am in the kingdom of God. I have yielded my life as a faithful subject and servant to that kingdom. He is my King, therefore, I am in His kingdom. And so, I have been delivered from the power of darkness, been translated into that kingdom.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흔히들 그것을 미래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나라는 현재의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신실한 백성과 종으로서 그 왕국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받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1:14):

14절을 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의 영광스러운 축복 중의 하나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Again, one of the glorious blessings of Colossians chapter one, th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그리고 바울은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몇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로 슬그머니 들어온 영지주의와 그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한 신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 18절 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였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입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우위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세번째 할 때의 첫째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높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시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For by him were all things created (1:16),

Genesis one tells u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d *God* there in Hebrew is *Elohiym*, which is plural. The Hebrew singular for God is *El*. The dual tense is *Eloi*. And *Elohiym* is the plural tense for God. "In the beginning God," *Elohiym*, plural. And I believe that that is a hint of the Trinity, right in the very first verse of the Bible, the fact that they would use God in a plural form.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도 신(神)이란 단어의 단수는 엘(*El*)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神)이란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삼위일체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에서부터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삼위일체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의논하며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1-3)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는 창조의 때에 능동적인 창조자(agent)로 일하였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손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가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우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불가시의 세계도 그가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영적인 존재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존재들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가 그를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며 또한 그를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were made for His good pleasure and purpose. People don't like that sometimes. They rebel against that which He has given you the capacity to do. Because, when He created you, He created you with a free will or a choice. You were created in His image, and God is the self-determinate being, and thus He created you, self-determinate, the power of choice. And that was necessary in order that He might have meaningful fellowship with you. 우리는 주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 그의 안에 있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존재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된 교제를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Studying the human body and studying the wisdom of God, I realize how that God could have made us very sophisticated robots, put circuitry boards in us. And could have made us to fulfill all of the functions that we can fulfill as human beings, except meaningful love, meaningful fellowship, and for that, you couldn't have a robot, you've got to have a choice. And so, God created us with a choice, the capacity of choice, and if you will exercise that choice and live for Him, your life will be rich and full and satisfying. If you exercise your choice by living for yourself, your life will be empty, futile and frustrating. He is before all things; "In the beginning, God." 인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정교한 로봇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었습니다. 우리 속에 반도체 칩을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참된 교제만 빼고 인간의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과 참된 교제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선택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고 풍요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궁허하고 메마르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He existed before ever there was a world, or stars, or planets, or life forms. Before there were ever angels, He existed. He is eternal; He has always existed. He is self-existent.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all things consist. The word in Greek

means, are held together. A very interesting statement in the light of the discovery of the atoms and the law of electricity. *Coulomb's Law of Electricity* declares that like charges repel. Positive charges repel each other; opposite poles attract. So, there's an attracting force between a positive and negative power. That's what we use in our electricity and running our motors and all, the alternating currents, *Coulomb's Law of Electricity*. But there is the repelling force of like charges, so that there is a repelling force of positive charges. 예수는 이 세상과 별들과 행성들과 생명들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는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셧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함께 셧다’라는 말의 헬라이어 뜻은 “서로 함께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자세계의 발견과 전기의 법칙발견을 통하여 참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극성은 서로 밀쳐낸다는 것입니다. 동인한 극성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반대된 극성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극과 음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전기모터를 돌리는 기본법칙이 됩니다.

We used to have a little box that looked like a coffin, and it had a mummy in it. And it was sort of designed rather ingeniously because you could take and pop that little thing on the end. And it had a magnet inside the mummy case, and the magnet would go down to the foot and you'd pop it, and there was a little magnet, or the mummy itself was magnetized, so that when you would pop the magnet down at the foot, you could lay the mummy in it. And it would lie still in the casket. Then, you would take and pop the thing at the head of the casket to pop the little magnet back towards the head, and then you'd hand it to your friend and you say, “See if you can make the mummy lie in the casket.” And try as they will, they'd put the little mummy in the casket and it pops right out. Because you've got the positive poles now both at the head of the mummy, and it pops out. And they're mystified, because this mummy pops right out of the casket. And they hold it there for a while and pinch it, you know, and as soon as they let go, it pops out again. And it's just a little trick that was based upon *Coulomb's Law of Electricity* of the repelling force of like poles. 어릴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처럼 생긴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그 속에는 미이라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독창적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뚜껑을 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이라 상자 속에는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미이라의 발치에도 자석이 내려가 있구요, 상자를 엽니다. 그러면 그 자석 또는 미이라에 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쪽을 누르면 미이라를 상자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자 속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발치에 있는 자석을 은근슬쩍 머리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상자를 건네 줍니다. “어디 미이라를 다시 상자 속에 넣을 수 있는지 해 봐.” 그러면 친구들을 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관 속에 미이라를 넣자마자 도로 튕겨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머리 쪽에 같은 극성의 자석끼리 치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잘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는 바로 튕겨져 나오니까요. 이리 저리 살펴보고 이곳 저곳을 만져보다가 다시 집어 넣지만 여전히 튕겨나옵니다. 이 장난감이 바로 같은 극성끼리는 밀쳐낸다는 쿨롱의 전기법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Now, in the bombarding of the nucleus of an atom, it took six hundred thousand electron volts to insert a proton into the nucleus of an atom. And so, by that they were able to determine that between two protons, there is a power, between ten and fifty pounds, necessary to hold them together. The nucleus of an atom is clustered, protons clustered together. In total defiance to the *Law of Electricity*, the mystery of the universe is, what holds them together? Science does not have an answer. They created an answer a few years ago with what they called the masons, which were, they called “atomic glue.” But then, that has been thoroughly discounted. 원자폭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자의 핵 속으로 양자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무려 60만 볼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기가 있어야 두 양자 사이에서 위치를 결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서로 묶어놓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원자의 핵은 서로 군집하여 있고 양자 또한 군집하여 있습니다. 전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우주의 신비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서로 묶어놓고 있던 말입니까? 과학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몇 년전 어떤 과학자들은 ‘메이슨’ 또는 ‘원자본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지어냈지만 아무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There was one man, who received his Ph.D. in science, and his thesis was on why the electrons do not collapse into the nucleus of an atom, the protons, following the *Law of Electricity*, with the attracting force of opposite poles. There’s a double mystery. Why are the protons held together, and why don’t the electrons collapse into it? And he wrote his thesis, and his thesis was basically, “They don’t collapse into it, because they don’t collapse into it.” And he got his doctorate. We don’t know. And by his confession of the truth, we don’t know. There is no answer except here, “By Him all things were held together.” If the Lord would just release His hold, just for a second, this whole physical universe would go up in one big gigantic bang. It would all be over. In the nuclei of every atom in the universe, these positive charges would follow their natural bent and they’d just repel each other and the whole universe would just, “pchoo.” It would be the end of everything in the material universe. By Him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Lord,

hang on.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왜 전자가, 상반된 극성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전기의 법칙을 따라 원자핵과 양자 속에서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중의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왜 양자는 서로 묶여있는지, 왜 전자는 그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는지? 그 박사님이 쓴 논문의 내용은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는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진실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함께 서 있느니라”라는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불들고 계신 것을 놓아버리신다면 순식간에 이 온 우주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들의 핵 속에서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서로를 튕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평’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 물리적인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계속 불들어 주시옵소서.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1:18):

We need to remember that. There are always those men who are trying to take that position as the head of the body of the church. I think that that is one of the weaknesses of denominations, is that it does sort of carry that power struggle. And men driven by the desire for power seek to gain the control over the denomination. A truly godly minister could care less about being the president of the denomination, or even the Pope. He only wants to be what God wants him to be, if he’s truly a godly man. He has no real ambitions to be anything other than what God has called him to be.

But there are men who are driven by the desire for power, and they strive to gain that preeminence and position of the head of the church. And it’s always rather sad to see it, for Christ is...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1장 18절)

교회라는 몸의 머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단제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은 교단을 좌지우지 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교단의 지도자가 되는데에는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교황의 자리와 같은 높은 자리라 해도 말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 되기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의 분수를 넘어서 다른 것이 되어보려는 야망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 위치,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만 애를 씁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 하면 오직 주님께서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who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Now, others rose from the dead before He did, but He is “the first-born” in that He is never to die again. Those that were raised from the dead before, died again, but His is unto eternal life.] that in all things he might have the preeminence (1:18).

Now that is the purpose of God and the plan of God, is that in everything Jesus has the preeminence. All things, again, includes you. And so, the question, does Christ reign preeminently in your life? Does He have the preeminence? You see, that’s the purpose and the plan of God for Jesus Christ, that He has the place of preeminence in each of our lives. That He is above everything else in our lives, that nothing supersedes the place of Jesus Christ in my life. 모든 만물 중에서 예수께서 으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계획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으뜸이 되게 됩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으뜸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계획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높이 계시며,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십니다.

Now, not just a mouthing of it, “Oh yes, Christ is preeminent,” but in the reality, the actuality. And I’m afraid, when it comes down to reality, when it comes down to actions, that many of those who do lay claim to being Christians, the truth of it is, Christ is not preeminent in their lives. Now, let’s not look at them; let’s look at ourselves. You see, I’m not going to have to answer for them; I’m going to have to answer for me. When I stand before God, I’m only going to be responsible for this fellow right here. And I’m going to give an account unto God for me.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not that I examine other people’s commitment, but that I examine my own commitment. That I not look at other people’s failures, but I look at my own failures and judge myself. But that’s important for each of us. That we will each just look at ourselves and judge ourselves, for if we will judge ourselves, then we will not be judged of God. 그저 입술로만 ‘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으뜸이십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기 서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헌신만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의 실패를 살피시고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해 보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should all fullness dwell (1:19);

Our minds cannot really grasp that particular phrase. It's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in Christ, should all of the fullness of God, that God had dwelt,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dwells in our Lord. We get that in chapter two, we are complete in Him.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1:19)

사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친히 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육체의 형태로 주님 안에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 졌습니다.

And,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unto himself; by him, I say, whether they be things in earth, or things in heaven. And you, that were sometime alienated and enemies in your mind by the wicked works, yet now has he reconciled (1:20-21)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화목케 하사 (1:20-21)

And so, Jesus has made peace with God possible for man. Man was at war with God. Man was rebelling against God. We all were in that rebellion against God, as we walked our own path, as we went our own way. As we were following after the desires of our flesh and of our mind, we were at war with God, rebelling against the law of God and the commandments of God. But Jesus,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providing a righteous basis for God's forgiving us of our sins has made peace with God possible. As He reconciles all things unto Himself. So we are told, "Be ye therefore reconciled unto God." Don't be at war with God; be reconciled unto God. And all things have been

reconciled through Jesus Christ, whether they are things in earth or in heaven. And you, that at one time were alienated from God; you were enemies of God in your mind and by your wicked works, you've now been reconciled.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였습니다. 제 갈 길로 행하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와 생각의 정욕을 좇아 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며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의의 기초를 제공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되었습니다. 한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body of his flesh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and unblameable and unprovable in his sight (1:22):

Now, you se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I have been forgiven all of my sins and transgressions. So that when Jesus presents me to the Father, He's going to present me blameless, unprovable, holy. In Jude we read, "Now, un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Jude 1:24). Oh, do you realize what Jesus Christ has provided for you? The total pardon and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r transgressions. He has, as you are in Christ. God sees you as holy and pure and righteous, for the righteousness of Christ has been accounted or imputed unto you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Not through your efforts, not through your great commitment. Not through your tremendous sacrifices, but through your simple faith in Jesus Christ, God has accounted you righteous. God looks at me tonight as righteous. Now, I don't even look at myself that way. I look at myself and I see all my flaws. I see all my failures; I see my weaknesses. But God sees me in Jesus. And as He looks at me in Christ, He sees me without blame, holy, unprovable. Oh, I love that. How thankful I am for that place I have in Christ tonight. Because of Him, God sees me as perfect.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1:22)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때 주님은 나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소개하실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주께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1:24)”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전적인 용서와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거룩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로 전가, 또는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서도 아니요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밤 나를 의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 투성이인 자신을 바라봅니다. 실패자로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실 때 그 분은 나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은혜의 자리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If you continue in the faith grounded and settled, and be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which you have heard, and which was preached to every creature which is under heaven; whereof I Paul am made a minister (1:23);

So again, the mention of the fact that the gospel had been preached to every creature. They were thorough in their evangelism in that first generation.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1:23)

다시 한번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Who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Paul's talking about himself: I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fill up that which is

behind of the afflictions of Christ in my flesh for his body's sake, which is the church (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1:24)

Now, this is a very difficult scripture to understand. Then I will frankly confess to you, I am not certain that I do understand the full implications of it. Does seem that Paul is saying that, in some way, he is completing the afflictions of Christ in his own body, for Christ's body sake, the church. Now, it can only be understood if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Jesus to His church or the relationship of Jesus to you. Whatever reproach you bear for your faith in Jesus Christ is really reproach that is being directed at Jesus. Whatever suffering you bear for Jesus Christ's sake, that suffering is being directed at Jesus. And so, Paul recognized that these beatings that he received, the stonings that he received, the suffering that he was subject to, and the imprisonment and all, were because of man's animosities against Jesus Christ.

이 구절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뜻일까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받는 비난은 예수님께 대한 비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당했던 매질과 돌로 맞은 것과 고난과 감옥에 갇힌 것과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 때문에 받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o that he was suffering for Christ's sake; he was in prison for Christ's sake. He was actually taking the sufferings of Jesus Christ, or the reproaches of Christ, the feelings that man had in his natural heart against Jesus. The hatred that man had against Jesus, Paul was privileged to bear it. "I rejoice that I can bear these things that are directed at Jesus, that I have this privilege of filling up the afflictions of Jesus. That is, that the feelings that man have of antagonism towards Jesus are directed at me, and I'm able to take them for Him." And Jesus so identifies with us, that He shares with us in this suffering. He said,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diverse temptations, trials" (James 1:2). "Don't count it a strange thing concerning the fiery trial which is to try you, as though some strange thing has happened to you. Rejoice!" (1 Peter 4:12)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and for the gospel's,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so persecuted they the prophets that were before you" (Matthew 5:10-12). So, filling up of the sufferings of Christ.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적대감을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쌓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주를 향한 인간들의 적개심을 받아들이고자 하노라." 예수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 분은 심지어 우리의 고통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벧전 4:12)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0-12)고 말씀하셨습니다.

Man, the natural man, still hates Jesus, and as you stand there before Him as His representative, you receive his abuse that he is really directing in his heart towards Jesus. Now, they counted it a privilege that they were able to do that. They rejoiced that they were able to take that suffering for Christ's sake. Don't take it personally. A lot of times we are so sensitive. Someone says something and we take it personally, as though they're directing it at us. No, it's being directed at Christ. And it's because that I'm Christ's representative that I'm standing there and receiving it. And if I look at it that way, then I can rejoice, Lord, that you've counted me worthy to suffer for Your sake as did the apostles in Acts, chapter four. Lord, oh my, You counted us worthy to suffer for You. So, I... 인간은 아직도 예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욕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를 향하여 퍼붓는 모욕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였으며 즐거워 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면, 그들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여기고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신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fill up that which is behind of the afflictions of [in that I am receiving the afflictions that are directed at] Christ in my flesh for his body's sake, which is the church: whereof I am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od which is given to me for you, to fulfill the word of God (1:24-25);

So, Paul is been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God's plan to fulfill the word of God.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1:24-25)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Even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but now is made manifest to his saints: to whom God would make known what is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1:26-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1:26-27)

The glorious mystery of God is that Christ will come and indwell you.

The other day we had an opportunity of sharing the gospel with the King of Laos. And as I was sharing with him, I knew that he was a Buddhist. And Buddhists... Buddha did teach that a man's problems and the evils of the world all stem from the material world, the flesh and the material world, and that if a man could completely disassociate himself from the material world, heaven was to dwell in the spirit and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material. In other words, to be totally removed from the material is to enter into Nirvana. And so that is, of course, the hope and the goal of the Buddhist, is to, through asceticism and all, denying the flesh, fastings, and all these things, to completely disassociate himself from the physical that he might enter in to the

total spirit which is Nirvana. And if you don't make it this round, then hopefully, next round you'll improve, and if you don't make it then, then next round.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라오스 국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저는 그가 불교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는 인간의 문제와 이 세상의 고통이 물질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이 물질세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이 이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전적으로 자신을 단절시킬 수 있다면, 열반, 곧 극락세상이 영혼 속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락세상, 즉 천국은 물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신자들의 소망과 목표는 금욕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물질세계로부터 단절시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생에서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세에서 다시 한번 정진해 볼 것이며, 내세에서도 안된다면 그 다음 생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또 안되면 또 다른 생에서...

Of course, the interesting thing, is there must, you know...when we started out with only one, how come we have so many billions today? Where are they coming from to be reincarnated? There have got to be a lot of new bodies being formed, because we started out with fewer spirits than we now have. Look how many spirits we've got around here today in the world, you know, in fact, what is it, about 10 percent of the people who ever lived in the history of man are living at the present time. So, sort of upsets that reincarnation bit.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 그런 환생이 있다면 우리 인류가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 수 십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환생되어 나온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전에 누구였었나요? 우리 시대보다는 전 시대의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역사상 살았던 인구의 10%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암튼 환생론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But, knowing that he had this background as a Buddhist, I shared with him that the Bible teaches that man basically is spirit. He lives in a body; he possesses a consciousness. But if a man lives on the body side of his life, he is living less than God would have him to live, for God would have us to live on the spiritual side of our lives. So, if my body is ruling, and I'm ruled by my fleshly appetites, then I'm living a life

alienated from God. But to live in fellowship with God, I must live after the spirit, the spirit-dominated life. Knowing that, essentially, this is what Buddha taught.

하여튼, 라오스 국왕이 불교신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저는 그에게 성경의 인간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양심을 가지고 산다. 만일 인간이 육체적으로만 산다면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의 육체가 나를 지배한다면, 즉, 육체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기 원한다면 나는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부처가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And I said, you know, there had been other religious leaders in history who taught important truths concerning how a person should live after the spirit, but I said the problem was, having taught the truth and pointed to the path, they could not give you the power to walk in that path and that often times is totally frustrating. Because I listen to what they say, I consent, and I say, "Hey, that's right; I want to live that way. I don't want to live after my flesh; I want to live after the spirit in fellowship with God." But, I said, not being given the power to do it, it only frustrated me. So,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die for my sins, to provide forgiveness for my sins. And then I said He did something else, He rose from the dead. And then He said, "Now, I will come and dwell in you and by My dwelling in you, I will give to you the power to walk this path." You don't have it in yourself; you can't do it in yourself, but I will dwell in you, and I will live in you, empowering you to do it. And I said, that basically is the chief difference between Christianity and the other religions of the world. With Christianity, the power is imparted by the indwelling of Jesus Christ. It isn't just pointing to the path and saying, "That's the way you should walk." But it is coming in and giving you the capacity and the power to do it.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친 위대한 종교지도자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진리를 가르쳤고 갈 길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옳거니 합니다. "맞아. 바로 저거야.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과 사귀며 영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망감이 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나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뭔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분은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로 하여금 이 도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하리라. 너희 안에는 그 힘이 없느니라.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같이 살게 되면 너희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주리라. >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권능을 내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이것이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만 말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Pray for the King of Laos, that the word of the gospel that was planted will take root. And as he acknowledges his own failures to disassociate himself from the flesh that he will seek that power of the indwelling Christ as we have here, “the mystery...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That’s the hope that we have. I can never do it myself, but He has come to live in me and to give me the capacity to do it.

라오스 국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금욕을 통하여 육체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이 허사였음을 깨닫게 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게 될 것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Whom we preach, warning every man, and teaching every man in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 man perfect [complete] in Christ Jesus (1:28):

And so, that is the purpose of the ministry, is to bring you into the full maturity in Christ Jesus. And what did God...all of the churches were dedicated to this. For years my ministry was dedicated to bringing people to Christ Jesus, but never to bringing them to the full maturity in Christ Jesus. Evangelism was my bag, the big thing. And the church was weak. Paul’s desire is teaching. His purpose was to bring them into the full maturity in Christ.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1:28)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있는 것입니다. 한 때 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데에만 몰두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데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데에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전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하였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데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Whereunto I also labor, striving according to his working, which works in me mightily (1:29).

You know, I'm going to stop right there, because there is so much in chapter two, and that I don't want to get started and then have to rush the thing at the end, which I have a tendency to do when I get carried away in the first part of the lesson. I have that tendency, you know, to then rush through some extremely important passages of scripture. And chapter two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pters in the New Testament, and I don't want to just rush through it. So, we're going to stop right there for tonight. And next week, we'll take chapter two, three and we might...well, four is really just sort of the final greetings and all, so that we can pop through in a hurry. But the real teaching lies in chapters two and three. As I say, four just is, sort of, goodbye and the personal greetings to the different ones.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29)

이 구절만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장에서 나눌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장을 시작하게 되면 대충 훑고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도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시죠? 2장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입니다. 대충 훑고 지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밤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2장, 3장, 그리고 4장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인사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면 4장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2장과 3장에 들어있습니다. 4장에는 작별인사와 여러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tonight for Jesus Christ. Your only begotten Son, who came to this world to manifest the Father, was the express image of God, the creator of this

whole vast universe. What a marvel that He should walk upon this planet earth, eat with men, sleep with men, talk with men and touch men. Oh, God, how we marvel at the mysteries of the incarnation,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But even of the greater mystery, that same Jesus, who died and rose again, who created the earth, who holds the worlds together, now dwells in our hearts and empowers our lives. Lord, how awesome that You should dwell in us. May we yield to You our bodies as instruments through which Your will might be accomplished. In Jesus' name we pray, Father. Amen.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친 형상이시며 이 온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분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걸으시며 인간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같이 주무시고 이야기하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오 하나님 성육신의 신비에 우리는 감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신비는,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세상에 오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우리의 몸을 드려 당신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bless you and help you as you, sort of, digest the truth. That it might become a very part of your life. And that indeed you might discover that great power that resides in you as a child of God. That mystery of God,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And may His power bring strength and victory to your life this week. May He demonstrate that power by giving you victory over an area in your life where you've been stumbling for a long time. May this week you begin to experience real victory there for His glory. Recognizing, "Hey, this is nothing but the power of Jesus Christ dwelling in me." Thank you, Lord. God bless you and be with you as you walk with Him. In Jesus' name.

주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숨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을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넘어지고 이기지 못했던 삶의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승리를 맞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구나”라고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시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